

마지막 교환유학을 마치며

숙명여자대학교

최소영

안녕하세요. 한국의 숙명여자대학교의 최소영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마지막 교환유학생생활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 교환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후기부터 온라인으로 오차대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학기는 무사히 일본 입국이 가능하게 되어 꿈꾸던 유학생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수강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과 비슷하게 학부수업과 유학생수업을 수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학기는 일본문학수업과 '컴퓨터 비전'이라는 전문적인 수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유학생이 듣기에는 어려운 수업들이었지만, 시험과 과제를 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유학생생활을 시작하면서 무조건 일주일에 한번 외출하기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하나 잘 몰랐지만, 전시회나 박물관 중에 1곳을 골라, 그 주위 동네를 구경 다녔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겨우 오차대에 적응했는데, 벌써 교환유학이 끝나다니, 매우 아쉬운 기분입니다. 한국에 돌아가도 오차대에서 배웠던 것, 경험한 것들을 잊지 않고 자신을 점점 성장시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동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도 교수님인 오구치 교수님, 1년동안 제가 정보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정보과학과의 이가라시 교수님, 항상 유익한 수업을 준비해주시는 이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타니구치 교수님, 아사다 교수님 언제

나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수업을 준비해 주시는 카토 교수님, 니시자카 교수님, 그리고 저의 일본 생활을 도와 주신 하기와라 교수님, 마츠다 교수님, 국제과 분들과 기숙사 관리인분들, 튜터 스즈키상 정말 감사했습니다.

